

우리카드, 우수고객 대상 ‘우카마이너스론’ 출시

최고 1억원, 최저연 4%



우리카드는 신용카드 보유 고객 중 신용도가 우수한 회원을 대상으로 약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우카 마이너스론’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카 마이너스론’은 한도 약정 후 고객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한도는 최고 1억원, 금리는 연 4.0%~10.0% 범위 내에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기존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이용할 때마다 건건이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우카 마이너스론은 약정기간 및 한도 내에서 고정 이자율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고객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도가 우수한 우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약정기간은 1년이다. 우리카드 스마트폰, 우리카드 고객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양일국 기자

kookie@meconomynews.com

뉴딜펀드, 血稅로 손실보전?… “대놓고 불완전판매 조장”

“3%안팎 수익 보장” 주장 놓고 업계 갑론을박

금융권 “강제로 금융사 돈 태우게 할까 걱정”

무늬만 ‘펀드’… 시중금리 3배 보장·관계적극

‘뉴딜펀드’가 위험자산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뉴딜펀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가 있는 출자금(equity) 비중은 높이고 원금보존 확률이 높아 안전한 선순위대출 비중을 줄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뉴딜펀드는 정부여당이 기획한 관계 성격의 펀드다. 5일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K뉴딜위원회 테스크포스(TF) 관계자는 뉴딜펀드에 3% 안팎의 수익을 보장하고 3억원 한도 5% 세율 적용, 3억원 초과시 분리 과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공개했다.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당초 선순위대출(70~75%), 후순위대출(10~15%), 출자금(약 15%)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운용구조상 출자금 비중을 높이면 정부에서 돈을 더 투입할 수 있고 손실 발생 시 출자금에서 먼저 제하게 된다. 정부가 리스크를 안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선 관계 뉴딜펀드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론이 엇갈렸지만 국가재정으로 펀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우선 펀드라는 간판은 내걸었지만 정부가 시중금리의 3배 이자를 보증하는 ‘관계 적금’에 가깝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선 정부 관계자들이 손실발생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점이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5일 현 여당 유력인사는 “뉴딜펀드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와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직 여당 의원이 지난 5일 “뉴딜펀드는 원금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이틀만에 “원금보장을 추구하겠다는 뜻”이라며 한발 물러선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관계자들은 “뉴딜펀드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출자금과 후순위대출로 감당이 안될 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시장경제DB

금손실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관계펀드’의 특성상 정국의 향방에 따라 사업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뉴딜펀드는 최소 3년 이상을 보고 운용계획을 잡고 있어 정권교체 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번 뉴딜펀드는 3억원 이상의 투자금에 대해 세율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2%의 세율을 부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국민들 가운데 이해택의 수혜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익성과는 별개로 정계 유력인사들이 특정 펀드를 앞다투어 홍보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자본시장법 57조에 따르면 펀드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은

금융투자업자만 광고할 수 있게 돼있다. 여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업 허가도 없이 펀드 광고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야당 소속 법조인은 5일 SNS를 통해 원금보장 논란과 관련해 “여당이 대놓고 불완전판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뉴딜펀드가 기존의 민간 인프라펀드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지 있을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미 시중에 수익률 연 6~8%를 목표로 최소 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펀드가 많기 때문이다.

양일국 기자

kookie@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packattack

지방은행, 5년새 지역 점포 줄고 수도권 늘었다

지방 49개 축소

수도권 26개 확충

디지털 전략 딜레마

지방은행들이 디지털·비대면화 흐름에 맞춰 천천히 연고지역 영업점을 줄여가는 반면 수도권 점포는 꾸준히 늘리고 있다.

18일 각 지방은행에 따르면 출장소 포함 국내 영업점수(6월 말 기준)는 부산은행 251개, 경남은행 154개, 대구은행 240개, 광주은행 145개, 전북은행 99개로 집계됐다.

5대 지방은행의 총 영업점수는 889개로 2015년 6월 말(923개)보다 34개 감소했다. 영업점포 축소폭이 시중은행 대비 매우 작지만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은행의 지역기반 내 점포가 5년새 총 49개 축소될 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점포는 26개 확충됐다.

은행별로 보면 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점포가 251개에서 238개로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6개에서 11개로 증가했다.

영업기반이 같은 경남은행도 지역 점포가 155개에서 142개로 줄 때 수도권은 3개에서 8개로 늘었다. 대구은행도 대구·경북지역 점포가 240개에서 221개로, 수도권은 3개에서 8개로 변화했다.



지방은행들은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만큼 점포 효율화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지방에는 수령인구 비중이 큰 만큼 지역기반 점포를 시중은행처럼 빠르게 없애지 못해서다.

올해 신설·폐점된 점포를 보면 부산은행은 6개 점포를 폐점했고, 3개를 신설했다. 경남은행은 올 상반기 6개 점포를 폐점했다.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광주은행만 5년새 총 7개 점포가 늘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진출을 전략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점포가 124개에서 117개로 감소할 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점포는 14개에서 28개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2개 점포를 각각 신설·폐점했다.

전북은행의 경우 가장 공격적으로 수도권 영업망을 확대해온 탓에 최근 일부를 통합하면서 수도권 점포가 20개에서 17개로 감소했다. 반면 영업기반인 전북지역은 71개에서 74개로 되레 늘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처럼 오프라인 점포를 공격적으로 통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원 기자 ieyoon@newdailybiz.co.kr

코로나 충당금 탓에… 상반기 은행 순익 17.5% 감소

NIM 급감에도 운용자산 호조
비이자이익은 3000억원 증가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을 대대적으로 늘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영업 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

하지만 주요 수입원인 이자이익은 20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순이자마진(NIM)이 2분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대출채권을 비롯한 운용자산이 지난해보다 9.6% 늘어나면서 이자이익 감소를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이자 부문의 수익성 지표인 NIM은 1분기 1.46%에서 2분기 1.42%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이자이익도 3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7.9%) 증가했다. 특히 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확대됐고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외환·파생상품이익이 증가했다. 신탁

관련이익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영업이 위축되면서 2000억원 가량 줄어든었다.

은행들의 선전에도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각각 6.68%과 0.49%로 지난해보다 0.16%p, 1.69%p 하락했다.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대손비용은 3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조원 상당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는 데 따른 것이다.

오창균 기자

2015년 Press Lions

Title: SEAFOOD
Client: MARS
Agency: ADAM&EVEDDB London
Product: TEMPTATIONS CAT TREATS

Silver Lion Campaign

해산물 맛
마스
아담&이브디디비 런던
고양이 간식 ‘템테이션’

Copy: 고양이와 얼마나 좋아하는지 길기길기 짝이던 간식 포장지를 보면 알 수 있다.